

잠녀, 문화 이상의 것을 봐야

<3부>'잠녀를 만나다' 143
일본 아마 대집합제1회 아마 포럼

등록 : 2009년 10월 06일 (화) 19:36:14
최종수정 : 2009년 10월 06일 (화) 19:36:1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일본내 '아마' 무형문화유산 등재 움직임 활발

단순한 전통 문화 아닌 지역 경제 연계 등 고민



▲ 소중기를 입고 테왁을 든 제주해녀(왼쪽)와 미에현 스가지마 지방의 해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내 아마(해녀)의 교류를 깊게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해녀 문화’의 전통을 계속해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수산업의 중요성을 계속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제주도 잠녀와의 연대도 돈독히 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진 하겠습니다”(해녀포럼 해녀 선언 중)

#일본 전역 아마 '한자리'에

일본 열도 아마 대집합과 제1회 해녀 포럼 행사가 지난 3~5일 미에현 토바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북쪽으로는 이와데현에서부터 남쪽 구마모토현까지 아마가 활동하고 있는 10개 지역으로부터 대표단 700여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일본 아마의 반수 이상이 활약하고 있는 토마와 시마 지역이 주축이 돼 아마 문화를 집대성하는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은 물론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한다는데 의미를 뒀다.

키타 구슈이치 토바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아마 포럼을 계기로 해녀들간의 교류가 보다 깊어지고 나아가 해녀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실현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오구치 지마시장은 “현재 지마시에는 20대 해녀들이 양성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부터 전입해온 젊은 남성들이 해남(海男)으로 활약하고 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자원보호와 어장환경 개선 등은 물론 다음세대에 아마들의 문화와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한때 6000명이 넘었던 일본 아마는 지금 1000명을 겨우 채울 정도로 줄었고 남은 아마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 서는 등 고령화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계 장치 등의 도움 없이 맨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하고 있다. 물질 작업을 통해 생겨난 제주 잠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문화유산-의복·도구·신앙·민요·놀이 등-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자신들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대감이 강하고 강인한 생명력과 자존감은 제주 잠녀와 일본 아마의 공통적 특징이다. 일본 역시 노시아비(왕에서 진상하던 전복장식) 등 아마 문화 중 일부만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아마 문화 전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잠정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 지난 3~4일 일본 미에현 토바시에서 열린 일본 아마 대집합 및 제1회 아마 포럼. 사진 위로 부터 아마 대집합, 북쪽 이와데현에서 부터 남쪽 구마모토까지 10개 지역에서 참가한 대표 아마들, 아마 선언을 낭독하는 모습.

잠녀-아마 다양한 가능성을 보다

첫 행사에 맞춰 시마시에서는 아마자료관을 개관하는 등 공을 들였다.

일본 아마가 일궈낸 결과물과 그 역할, 일본과 한국 잠녀 교류, 근대 시마 지역 아마들의 출가에 관하여 등 다양한 주제 강연이 마련됐는가 하면 아마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꾸려졌다.

제주에서는 해녀박물관과 대표 잠녀 1명이 참가했다. 아마자료관과 바다박물관에서 이달 내내 제주 잠녀 사진전을 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제주 잠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좌혜경 제주해녀박물관 학예연구담당은 "제주에서 해녀박물관을 개관하고 잠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자료 수집 등이 이뤄지는데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일본 역시 아마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둘러 보다 아마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잠녀, 원조의 자부심 키워야

해녀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쿠오카현 가네자키나 가고시마현 이키, 노토반도 와지마시 헤구라 시마 등 일본 내 대표적인 아마 활동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시작이 '제주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만난 대표 아마들이 입을 모아 "우리들의 원조는 제주도"라며 제주 참가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잠녀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작업은 어제를 기억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승 보존할 것인가'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더 의미가 있다

이번 일본의 아마 대집합과 제1회 아마 포럼 역시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아마들 스스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시하라 바다박물관장은 "제주의 잠녀나 일본의 아마 모두 소중한 자산이지만 보존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며 "누가 어떻게 라는 방향을 잡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관장은 또 "아마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어촌 역시 활력을 잃었지만 바다 어장을 살리면서 아마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일부러 젊은 아미를 양성하지 않더라도 아마들이 알아서 자연과 바다에 돌아오고 있다"며 단순히 문화에만 의미를 두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 아미 포럼은 교류를 통해 아미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아미들 스스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주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일본 아마자료관에서 열린 제주 잠녀 사진전. 이달말까지 바다박물관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전시될 예정이다.